

불법 주·정차 신고 100일새 20만건

19만215건 검토 완료...11.8% 계고장만 발부·14.9% 불수용

46.2%가 수도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順

8월부터 과태료 최고 8만원...정부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시행 100일 만에 20만 건 넘게 접수됐다.

10건 중 7건꼴로 과태료 철폐를 맞았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4월 17일부터 이날 23일까지 100일 간 총 20만39건이 접수됐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가지다.

전체 신고 건수 중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가 11만652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차로 모퉁이 4만646건(20.3%), 버스정류소 3만565건(15.3%), 소화전 1만8276건(9.1%) 순이었다.

전체 신고의 95.0%에 해당하는 19만215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끝났고, 이중 12만7652건(67.1%)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6만2363건(32.9%)은 '일부 수용'돼 경고조치(계고)하거나 '불수용'처리됐다.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 결론이 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계고장 발송 건수는 2만2493건(11.8%), 불수용 처리는 2만8335건(14.9%)이었다.

여러 사람이 중복 신고하거나 신고를 취하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1만1735건(6.2%)은 '기타' 집계로 잡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6.2%·9만2527건)이 전체 신고의 절반 가량 됐다. 경기도에서 5만5058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서울시(1만8761건)와 인천시(1만8708건)가 뒤를 이었다.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대구 달서구 송전동, 인천 서구 연화동·청라동, 광주 북구 일곡동, 대전 서구 둔산동, 울산 남구 삼산동, 세종 나성동·어진동·한솔동, 경기 안산시 고잔동, 강원 원주시 무실동, 충북 청주시 복대동, 충남 천안시 중앙동,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남 순천시 덕연동, 경북 구미시 송전동·상모사곡동, 경남 창원시 상남동·신월동, 제주 제주시 이도동·연동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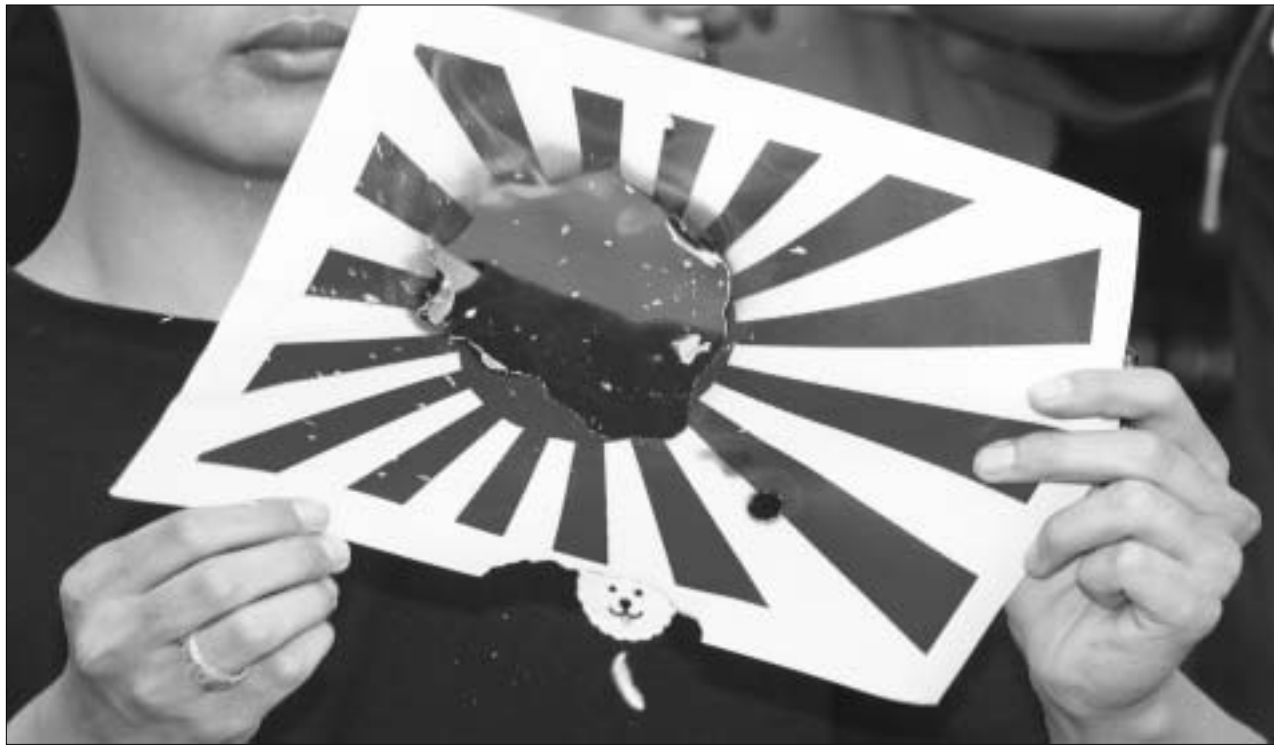
정부가 관할 시·군·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대구 달서구 송전동'의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북 구미시 송전동·상모사곡동 57.3%, 광주 북구 일곡동 43.9%, 대전 서구

둔산동 42.3%, 울산 남구 삼산동 41.1% 등의 순이다.

전국 2792곳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중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922곳)의 위반 비율이 40.2%로 높았다. 주거지역(1007곳)은 30.5%, 업무지역(863곳)은 24.7%였다.

정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스



불타는 옥일기 한국대학생진보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미쓰비시 상사 앞에서 열린 '강제징용 사과 인하는 일본 및 전범기업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옥일기를 인쇄한 종이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거세미나방' 중국서 편서풍 타고 영광 유입...방제 비상

농작물 80여 종 큰 피해

사료용 옥수수과 벼 등 주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영광으로까지 확산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서 서해를 건너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비래(飛來) 해충'이다.

영광군은 검역 병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이 영광읍 연성리 사료용 옥수수 재배단지에서 최근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을 국립농업과학원에 동정

(同定·생물의 속·종을 결정하는 검사)을 의뢰하고 최종 확정 진단을 받아 재배 농업인이 방제토록 조치했다.

아메리카가 원산인 거세미나방은 돌발 해충으로, 화분과 작물인 옥수수·벼 등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충은 주로 어린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에서 발견된다. 겹겹이 포개진 옥수수 잎에 숨어서 엽육과 줄기를 갉아 먹어 큰 피해를 준다.

특히 편서풍 기류를 타고 하루 1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암컷 한 마리가 최대 1000개 가량의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어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지난달 제주도에 처음 발견된 이후 여수·보성·해남·영암 등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요 곡물 생산지인 안후이 성까지 날아들어 농작물 2400ha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주로 사료용 옥수수 재배단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재배농가에서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방제를 하고, 의심 개체가 발견되는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만취 운전하다 사망사고낸 뺑소니범 검거

만취상태에서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5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 모 대학교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인 상태로 SUV를 몰다 B(20)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고 2.7km가량 떨어진 유원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면을 반대편에 있던 운전자가 목격한 사실을 알고 겁이 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잇따른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유원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안서 굴삭기 사고로 50대 작업자 숨져

29일 오전 7시57분께 무안군 무안읍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모(30)씨가 운전하던 굴삭기가 작업자 A(56)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가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 씨가 굴삭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굴삭기 운전자 이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김해서 회사 여성 동료 살해한 50대 영장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회사 여성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이 다니는 회사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직원 B(50)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 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김계에 나서 김해시내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유에 대해 "B씨가 내 아내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한 적이 있어 살해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재 아내와 이혼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점 등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범행동기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피스텔서 30대 남성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추정되는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타살로 숨진 것으로 보고 주변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목부위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 남성은 이 오피스텔 3층에서 살고 있는 주민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매매 장물업자 등 104명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는 29일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업자 A(21)씨를 상습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주워서 A씨 등에게 팔아넘긴 B(22)씨 등 101명을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난·휴대전화 101대(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이 중 35대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클럽, 주점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주워서 A씨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한 도난·분실 휴대전화 66대(시가 7000만원 상당)를 회수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